

# 광주를 넘어서기 위한 희망의 몸짓

임철우 지음 《봄날》(전5권)

김외곤

서원대 교수 · 국문학

모진 추위가 가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이 봄에 새롭게 광주가 부활하고 있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버린 그 광주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역사 바로세우기'를 모토로 하여 요란하게 변죽만 울리던 정치꾼들 대신 광주에서 자라나고 1980년의 광주를 통해 세계에 눈뜬 한 젊은 작가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을 끈다.

10여 년의 산고 끝에 최근 다섯 권 짜리 장편 소설 《봄날》을 상재한 임철우가 바로 그 작가이다. 그는 이 작품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광주가 역사적으로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항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 광주와 함께해온 작품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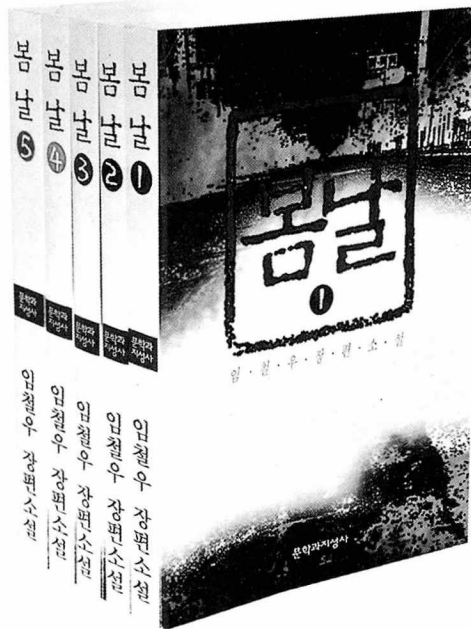
광주 때문에 소설가의 길로 접어든 만큼, 임철우의 작품세계는 등단 이래로 그 곳을 떠난 적이 거의 없다. 물론 《그 섬에 가고 싶다》 등의 작품을 통하여 그가 낙일도라는 조그마한 섬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차례 시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 작품들은 때때로 짙은 서정성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이데올로기 대립과 남북 분단이 빚어낸 비극을 형상화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붉은 산, 흰 새》에서도 경찰관 세력과 월북자 내지 좌익세력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되풀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품들을 읽으면서 낙일도가 광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작가가 분단의 극복과 민주화의 실현을 별개의 과제로 다루지 않고 연속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임철우에게 있어 낙일도와 광주는 지리적으로만 격리되었을 뿐, 우리 사회의 근본 과제를 표상한다는 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장소인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봄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고향에서 벌어진 간첩사건으로 인하여 서로 반목과 질시를 계속하던 낙일도 사람들이 항쟁의 도중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화해에 도달하고 있음이 그 뚜렷한 증거이다.

한편 이와 같은 '분단-민주화'의 과제에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작품을 처음부터 읽고 있노라면 한동안 가슴 가득히 분노와 탄식이 치밀어오른다. 그러다 차츰 마음 속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전해져온다. 바로 희망 때문이다.**



대한 친척 이외에도, 《봄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광주항쟁의 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낸 세밀화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광주에 대한 평가나 해석은 유보한 채, 광주 시민의 삶을 최대한 실감을 동반하여 전달하고 있다. 여기서 실감을 동반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은 르포기자처럼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 개인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가 거기에 맺힌 분노·슬픔·한탄·절망·공포 등을 그대로 그려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신문기자나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정의 묘사만큼은 문학가의 특유의 영역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공수부대원들의 잔혹성에 공포감을 느끼는 장면, 공수부대원의 무자비함을 '광기'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국군인지를 의심하는 장면,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서 뜨거운 저항의 불씨가 끓어오름을 느끼고 맨몸뚱이로 계엄군에 맞서는 장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시민군을 조직하는 장면 등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요컨대, 이 작품은 광주항쟁에 관하여 이제까지 씌어졌던 어떤 보고서보다도 더 강한 충격을 던져 주는 문학적 보고서인 셈이다.

그런데 작가는 왜 이토록 절절하게 당시의 광주를 재현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어쩌면 작가는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달래는 마음으로, 또는 그 자신의 비겁한 행동에 대하여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썼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때 그 아픔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원흉들이 풀려나오는 현실상황에 대하여 항의하는 심정으로 썼는지도 모른다.

## 당시의 광주 절절히 재현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작품이 광주 사람과 광주 바깥의 사람을 보다 가까운 거리로 다가가게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작가는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힌 광주의 비극이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이후 군부 통치하에서 신음하게 된 국민 모두의 비극이고, 광주의 아픔을 달래는 일 역시 이 땅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과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항쟁기간 중에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소설적 형상으로 복원해 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해낸 것도 이 작품이 지닌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작가는 다양한 인물 형상을 통해 광주 항쟁에 참여한 계층의 광범위함을 그려내고,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

하여 이제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군부 내부의 사정과 미국의 참여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계엄군의 총에 맞아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장면을 눈 앞에 보는 듯이 묘사함으로써 어떤 보고서보다도 분명하게 계엄군의 무자비함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그토록 방대한 자료를 모은 뒤에 그 자료를 실제 일어났던 상황에 맞게 재배치하고, 거기에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시킨 작가의 성실함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 희망의 메시지 전달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작품을 처음부터 읽고 있노라면 한동안 가슴 가득히 분노와 탄식이 치밀어 오른다. 그러다가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차츰 마음 속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희망 때문이다.

즉, 작가는 비록 항쟁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해 5월 16일 밤에 벌어졌던 횃불 시위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불꽃이 모여 작은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를 향해 갈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바다는 민주와 자유·평등·통일의 바다일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장차 작가가 광주를 더욱 희망차게 그리게 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여하튼 소설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을 담은 문학 장르라면 임철우는 자신의 통찰을 '희망'이라는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살아남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인 명기의 다음과 같은 말은 새삼스러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절망하지 말자. 두려워하거나 증오하지도 말자. 이 추한 세상의 악과 폭력이 오직 절망과 증오만을 가르치려 할지라도, 나는 이제부터 희망을 배워가리라. 인간과 삶을 향한, 가슴 벅찬 소망과 그리움의 노래를……” ◆

문학과학성사/A5신/각 468면 내외/각 9000원 내외